

비

문

학

위

크

북

vol1

후국일T

“비문학, 아직도 뭉개고 있니 ?”

“잘 포개 읽자. 제발요”

OO님 답변

(필의에서 개인 정보나, 강의 홍보용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제외한 후 제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1) 일단 저는 글을 읽을 때 물 흐르듯이 읽는 편인데 (단선 질주 하듯) 이렇게 읽다보니..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서, 글의 내용이 머리에 잘 안 박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장을 읽고나서 / 왜 정보가 머리에 안 들어오지? 하고 다시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결국 비문학을 잘한다 하는 분들의 글을 보면 '연결'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문단과 문단간의 연결 . 결국 비문학의 정도는 저렇게 보이는데. 전 일단 그 연결을 하기 이전에 연결 재료들을 독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즉 한 문장 처리가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a라는 문장의 뜻이 a인데. a로 파악을 못하는 것 같네요.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문제를 풀 정도의 추상적 이해라고 하나요..? 그 정도는 독해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 문장독해부터 이게 막히니 글 독해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네요.. 결국 문장 독해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평가원 지문들을 보면 초반에 주제에 간략하게 암시하고, 이후 주제를 본격적으로 설명할 때에 어떤 개념을 알아두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알아주는 개념의 개수가 늘어날 수록 술술 독해해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즉, 정보를 홀딩한다고 해야되나요. 정보를 감당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1,2문단에서 읽어낸 정보 중 필수적인 정보는 계속 끌고 내려오면서 읽어야하는데 단기 기억 상실증처럼 주요정보를 계속 까먹고 정보감당능력이 약하니 결국 글이 파편화되버리는 것 같습니다.

(4) 익숙치 않은 제재에 대한 용어들이 튀어나올 때 일단 한 번 막히고 뇌 사고 회로가 정지되는 기분이 듭니다. 가령 기출에 나왔던 기본 어휘들 (ex. 금리, 환율, 밀도 등등) 같은게 그러했습니다.

(5) 위에서 써놓은 것과 같은 얘기이긴 한데.. 시간의 부족이 큼니다.. 시험 시간 내에 다 푸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 화학 -> 문법 -> 문학 -> 비문학 순으로 풀니다) 비문학 1~2지문 남는 것은 매 한가지였고 지문 읽는 것조차도 벅찼습니다. 문학까지 다 풀면 거의 30분 정도가 남았는데.. 그 시간안에 비문학 다 푸는게 매우 힘들더군요. 문제 푸는데도 바로바로 짹짹 못 짹는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지문 읽는 속도도 뭔가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느린 것 같습니다.. 거의 2번째 지문 다 풀고나면 10분 미만의 시간이 남는 상황이라 마지막 지문은 1~2문단 읽고 짹어서 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A) 우선 비문학에서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면 문제 풀이에 대해서 고민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글(지문/텍스트)을 읽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문학을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잡다한 스킬을 배우거나,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운다거나, 그냥 막연히 집중해서 읽어야지 정도가 끝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문학 공부의 비유하자면 구멍이 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비문학 공부에서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관점]을 만들고 그러한 기준에 맞추어 글을 읽어가는 연습을 하고, 자주 그러한 기준을 수정해서 수능 날까지 가장 완성된 형태에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보셔서 알겠지만 수능 날 1교시 국어 영역을 풀면서 제한된 시간과 긴장감 내에 수험생이 뭔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기술을 몇 개 안됩니다. 대부분 시간에 쫓기며 구역구역 풀다 나오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평소에 만들어놓은 글을 읽는 습관입니다. 긴장감과 시간 제한 속에서 “늘 하던대로” 똑같이 풀고 나오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늘 하던대로 = 기출 분석을 통해 만든 글 읽기 기준]이 되는 거구요. 그래서 기출분석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수험장에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되겠네요. 다만 그냥 막연히 고민하기보단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고민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휘 -> 한 문장 -> 문장 단위의 독해 -> 전체 구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기본적으로 [어휘]부분에서의 구멍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4등급의 대부분의 학생들을 생각보다 모르는 어휘가 많지만 그렇다고 인식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런지를 보면 어떤 어휘를 보았을 때 아예 모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진(작년 수능 화작에서 출제된 어휘입니다)”과 같은 어휘를 보았을 때 비슷한 느낌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그걸 못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러한 어휘가 나왔을 때 명확한 어휘의 이미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어진 문맥 상에서의 어휘를 파악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어휘의 잔상만 남지 정확한 문맥의 의미가 머릿속에 남지 않게 됩니다.(보통은 글자만 남는다고 하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휘] 단위에서 기술에 빈출된 어휘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명확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공부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부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기술 어휘를 보았을 때 사전적 정의를 설명할 수 없고, 관련된 예문을 2개정도 만들 수 없다면 잘 모르는 어휘입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사전을 찾아보는 것뿐 아니라 관련된 예문을 찾아서 이미지로 기억에 남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현강 학생들에게는 국어 단어를 만들어서 예문까지 정리를 해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4개월 정도만 해줘도 생각보다 글을 읽는 속도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당연한 거죠. 영어에서도 단어를 모르면 문장 단위 독해가 안 되듯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네요. ㅠ

[문장단위 독해 - 한 문장]

어휘를 많이 안다면 이제 [한 문장]을 잘 읽을 수 있는 도구들은 마련된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빵을 건데 기본적으로 밀가루, 물, 베이킹 파우더 등등의 재료들을 준비된 셈인 거죠.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독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게 [글의 구조, 유기적 흐름]등에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그리고 막상 보면 정작 [한 문장]을 잘 못 읽어냅니다. 하지만 비문학에서의 독해의 기본은 풍부한 어휘를 통해 한 문장을 잘 읽고, 문장 단위를 붙여 읽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빵만들기의 과정으로 비유하면 문장 단위의 독해는 밀가루를 반죽하는 것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학생들은 정작 이 과정보다는 그 다음 과정인 빵의 모양을 만들고, 굽고, 장식하는 과정에만 초점을 둔다는 거죠. 결국 학생들은 정작 중요한 문장 단위에서 독해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과정에만 집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구조고 나발이고 성적과 독해력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물론 강의를 들을 때는 강사가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오 ㅅㅂ 개편다. 내가 저걸 못 봐서 비문학을 못하는구나. 구조를 파악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배운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막상 혼자 기술 분석을 해보려하면 그게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강의에서는 강사가 기본적으로 문장 단위의 독해를 해주고 구조를 잡아주니까요. 이걸 거꾸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후적인 공부를 하는 거죠. 단언컨대 [문장 단위 독해 -> 문단 단위의 독해]의 순서가 맞는 순서입니다. 즉 문장 단위의 흐름을 잡고 한 문단 내에서 뭘 말하는지를 파악해야 그걸 바탕으로 문단끼리의 구조를 잡고 흐름을 잡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 조금 더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리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합니다.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되겠죠. 반면 공부를 비효율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막연히 [그냥 안 돼, 그냥 어려워, 이해가 안 돼]와 같은 수준에서 고민이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친구의 말이 자주 귀에 들어오게 되고 “누구의 강의를 좋다, 누구의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오른다”에 자주 흔들리고 정작 자신이 부족한 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적은 오르지 않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할 부분은 [문장 단위의 독해]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장 단위의 독해는 강사가 올려주기에 가장 힘든 부분이 됩니다. 독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이러한 독해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결국은 수험생이 많은 글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이 쌓여야 증가하니까요. 그렇다면 강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생각보다 자신이 [한 문장]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문장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을 정확하게 쪼개서 읽어주고 그러한 형식에 담긴 내용을 머릿속으로 [인식 -> 납득]하고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20번 1문단]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과학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해왔다.]

간단한 문장입니다. 어떤가요? 글이 딱 잘 읽히시나요? 생각보다 잘 읽히지 않습니다. 허나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애초에 문장의 구조 자체가 복잡한 [겹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니까요. 이러한 문장을 읽으면 학생들은 그냥 굶어버리고 넘어갑니다. 애초에 글을 읽을 때 [멈칫]거리거나 빠르게 읽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문장 단위의 독해를 위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게 합니다. [슬래쉬 + 괄호]입니다. 사실 머리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처음에는 기본적인 도구가 있어야 익히기 편하니까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자신이 왜 밑줄을 치는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밑줄을 쳤는지 물어보면 [그냥 중요해 보여서요]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한 밑줄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팩트로 때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밑줄을 쳐 놓는 부분을 보고 돌아가는 학생들을 몇몇 안 됩니다. 대부분은 글을 읽고 머릿속에 남은 잔상을 따라서 지문으로 돌아가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쓸모없는 밑줄을 시간 낭비 + 지문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밑줄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밑줄을 칩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에만 치는 거죠. 저는 글의 구조가 보이는 지표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위의 문장을 읽고 한 문장을 잘 읽었다면 아래와 같이 문장이 쪼개져서 명확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왜’라는 =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 설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 [과학철학에서는 ->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해왔다]

- ① (왜 = 질문) -> (답 = 설명)인데
- ② ①에서의 (답 = 설명)을 분명히 하고 싶어서
- ③ [과학철학에서] -> [여러 가지 설명이론을 제시해왔음]

와 같이 정보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만 1문장을 읽어도 생각보다 뒤에 제시될 내용들에 대한 단서가 많이 제공됩니다. 당연히 이 글에서는 그러한 [설명 이론]들을 구체화해서 제시할 것이고, 설명 이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설명이론을 제시한다고 했으므로 소위 말하는 [병렬 / 구분 / 비교]와 같은 구조로 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구조는 이렇듯 문장 단위의 독해를 바탕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또한 단순히 표면적으로 제시된 정보 뿐 아니라 추가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도 있죠. [설명을 분명히 하고 싶어서 -> 설명 이론을 제시]했다는 건 결국 [설명 = 분명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면 마지막 문단에서 [선행의 이론의 한계]를 파악하는 게 어려웠을 거구요.

즉 위의 예시를 통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한 문장]을 잘 읽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부터 독해의 시작이고, 비문학 공부의 시작이라는 거죠.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도 좋고 자신만의 방법도 좋으니 어떻게 하면 한 문장을 잘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 ① 긴 문장이 나오면 굵지 말고, 독해 속도를 늦춘다.
- ② 머리로 문장이 파악이 안 된다면 슬래시나 괄호를 통해 문장을 쪼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다.
-> 다만 점점 머리로 처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모든 문장을 수험장에서 슬래시치고, 괄호를 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또 하다 보면 금방 기본적인 문장들은 처리가 됩니다.
- ③ 한 번 읽고 문장이 뜬 것 같다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다시 ①~②와 같은 행동을 취한 후 [인식 -> 납득]하고 넘어간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속도에 집착해서입니다. 독해 속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비문학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이셔야 될 부분은 [지문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에서 고민하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즉 모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듯 밀도 있게 읽어내고 빠르게 정답을 골라내는 거죠. (물론 발췌독으로 푸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고, 평가원의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문장단위의 연결이나 독해가 가능하고, 필요한 부분에만 그걸 적용할 정도의 독해력이 갖춰진 경우가 많지 한 문장을 못 읽는데 발췌나, 속독만으로 지문을 푼다는 건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문을 잘 읽었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답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보기> 추론의 경우도 [지문에서 제시된 정보 중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가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구요. 그리고 복잡한 수식이나 계산 문제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 지저분한 계산을 시키는 경우는 몇 안 됩니다. 특히나 평가원 기출을 보시면 지문에서의 핵심을 뚫어낸다면 복잡한 계산처럼 보이지만 계산 없이도 소거할 수 있게 구성된 선지들이 상당하구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x) 보험의 <보기> 문제, 양자컴 비트 문제, 퍼셉트론 <보기> 문제, 이번 3월 교육청 렌즈와 서터 문제, 4월 교육청 경제 부분 발문 문제 등)

[문장단위 독해 - 문장 단위를 붙여 읽기]

개인적으로 이 과정이 문장 단위의 독해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며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원이 제시하는 문장들은 긴밀한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큰 줄기 -> 같은 줄기에서 나오는 여러 작은 줄기들]와 같은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글을 읽는 것을 보면 문장 단위를 다 파편화시켜서 독해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새로운 정보로 들어오게 되고 정보량이 많아지고 글을 읽어갈수록 선명도가 떨어지고 글이 붕 뜨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나 봤더니 지문에서 제시해주는 문장을 연결하는 도구들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실제 발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도구들인데 그게 글로 제시되면 사용을 못합니다. [지시어] + [접속어] 등이 가장 기본적인 연결 고리들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읽고 -> 인식하고 -> 납득]하고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예문으로 볼게요.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5~26번 1문단]

①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로 나뉜다. ② 파클리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③ 그러므로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 뿐 아니라 정상 세포 중 빈번하게 세포 분열하는 조혈의 세포도 손상시킨다. ④ 이러한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은 이 약제의 사용을 꺼리게 하는 주된 이유이다. ⑤반면에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의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정보량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문장 단위를 붙여서 읽지 못하는 겁니다. 즉 [당연]하게 들어와야 될 정보들이 당연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으므로 정보량이 많고 글이 뜨는 게 되죠. 같이 봅시다.

우선 위의 문단에서 제시된 큰 흐름은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항암제]가 될 것이고 거기서 갈라져 나오는 작은 줄기들은 2개정도가 되겠죠. [세포 독성 항암제] <-> [표적 항암제]요. 실제로 제시된 문장의 번호를 매긴 것들을 같은 흐름으로 나눠 준다면

① -> ②~④
-> ⑤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러한 과정에서 [① -> ②]의 과정에서 연결이 안 되고, [②~④]의 연결이 안되고, [④ -> ⑤]의 연결이 안 되니 문장이 다 뜨는 겁니다. 한 문장씩 봐요.

①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 (세포 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로 나뉜다.

-> 보통 1문단에서 [소재 -> 구체화된 제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항암제]라는 소재를 통해서 항암제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죠. 따라서 자연스레 다음 문장부터는 그러한 항암제를 각각 설명하게 되겠죠.

② (파클리탁셀과 같은 =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 사멸에 이르게 함]한다.]

->여기부터 당황합니다. 낯서니까요. 쫓 필요가 없어요. 연결해주세요. 결국 ①에서 제시한 세포 독성 항암제에 대해서 먼저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 ->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 사멸에 이르게 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고 읽어요. 내용적인 이해 말구요. 뭘 말하는 문장이죠? 그래요. 항암제 중 세포 독성 항암제가 [암 치료]를 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그렇다면 [세포가 사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 세포 분열을 하고 -> 세포가 증식해야 하는구나]까지도 알 수 있는 거죠.

③ **그러므로**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 중 빈번하게 세포 분열하는 종류의 세포도 손상시킨다.

-> 여기서부터 문장이 뜨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를 활용해서 읽어주어야 해요. 무슨 말이야 [A이다 -> 그러므로 B이다.]와 같은 문장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인과가 머릿속으로 처리가 된다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인식 -> 납득]**하고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를 [붙여 읽는다]고 말을 하고 ②와 붙여 읽어줘야 되겠죠. 봅시다.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 중 빈번하게 세포 분열하는 종류의 세포도 손상시킨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읽고 인식하는 거죠. **[세포 분열을 방해 -> 증식X -> 사멸]** -> **그러므로** -> **[암세포 + 정상세포도 빈번하게 손상시킨]**와 같아요. “아 ②의 과정에서의 [세포]는 [정상세포 + 암세포]와 같은 모든 세포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③과 같이 정상 세포도 빈번하게 손상시킨다는 거구나. 인정~” 와 같은 **[인식 -> 납득]**이요. 생각보다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읽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안타깝워요. 다 떠버릴 테니까요.

④ **[이러한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은 이 약제의 사용을 꺼리게 하는 주된 이유이다.

->[지시어]가 나왔네요. 생각해주세요. [이러한]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이 뭐죠? 그래요. [암세포 + 정상 세포도 -> 손상]시키는 거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약제의 사용을 꺼리게 되겠네요. 인정? 인정.

⑤ **[반면에]**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반면에]만 읽고도 뒤에 제시될 내용이 예측이 되어야 하죠. [②~④]에서 [세포 독성 항암제 -> 세포 분열 방해 -> 증식 X -> 사멸] -> [정상 세포도 손상 = 부작용 -> 사용 꺼림] <-> [반면에 ->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 선택적으로 작용”]이니깐요. 즉 1문단을 정리하면

항암제 -> 세포 독성 항암제 -> 선택적 작용X -> 부작용
-> 표적 항암제 -> 선택적 작용O ->

이 전부였어요. 이렇게 제시되는 문장들을 붙여읽고 당연한 정보들로 만들어서 받아들이게 되면 생각보다 정보량이 줄고, 그 과정에서 다음 내용도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1문단이 끝나요. 그렇다면 다음 문단에는 어떤 내용이 올까요? 그래요. [세포 독성 항암제]에 대해서 구체화할 것이고, 당연히 [그렇다면 세포 독성 항암제는 어떻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는 내용이 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흐름을 보는 게 글의 구조를 잡는 독해입니다. 사실 글을 잘 읽는 친구들은 이런 기본 문장 단위에서의 독해가 무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글을 잘 읽습니다. 다만 글을 못 읽는 친구들은 그러한 당연한 사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때문에 어려운 거구요. 다시 말하지만 글의 구조를 잡고, 문단간의 유기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일단 [한 문장 - 문장 단위 독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문장 단위의 독해가 가능해야 중요한 정보와 세부 정보가 구별이 되고, 힘을 주고 읽을 부분과 파악만 해두고 돌아올 부분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모두 중요한 정보로 느껴지게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 정보량이 많은 글

보통 정보량이 많은 글들은 [개념]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1) 이해 - 어떻게 / 어디까지 이해할 것인가?] + [2)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1)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조울라 집중”하고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かを 고민해보는 거죠. 보통 개념이 제시되는 경우 보통 [정의, 일반화된 설명 -> 예시, 구체화된 설명, 비유]등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정의]만으로 파악이 안 된다면 줄지 말고 뒤에 제시되는 부가 설명이나,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세요. 애초에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적으로 제시되는 문장들이니깐요. 만약 단순 [인과]나 [정보 나열]의 경우에는 [킵]을 해두신다고 보면 됩니다. 제시된 표면적인 수준에서의 정보만 물을 가능성이 크고, 애초에 깊은 이해를 바라지 않고 제시되는 정보들일 가능성이 크므로 제시된 만큼만 받아들이고 무엇이 제시되고 있는 건지만 파악하고 힘을 빼고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2) 그리고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이 “**그러한 정보가 지금 왜 제시되고 있는가?**”가 됩니다. 즉 이해가 되면 좋지만 수험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 수험장에서 정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러한 정보가 왜 제시되는가라도 파악을 해놓고 넘어가주셔야 합니다. 만약 선지에서 묻는다면 그 때 다시 돌아와서 보거나, 세부 정보와 같은 경우는 돌아와서 찾으려 되니까요. 즉 제시되는 정보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정보가 왜 제시되는가를 볼 수 있는 것도 독해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공부의 질과 양치기

개인적으로 양치기는 국어 공부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어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배울 때 [반복 훈련]은 중요하니까요.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 훈련]의 목적으로의 양치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나 [기준 or 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러한 기준이나 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만약 안 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와 같이 자주 적용해보고, 수정하는 과정을 위한 양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그러한 기준이나 틀 없이 맹목적으로 양만 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이 떨어지는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권하는 편입니다.

1) 평가원 기출(질 > 양)

-> 기준과 틀을 만들기 위한 기출 분석의 용도

2) 교육청 + 사설 + EBS + 릿밋딕 등등(질 < 양)

-> 1)에서 만든 기준과 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반복 훈련의 목적

개인차도 있을 것이고, 방법 차도 있겠지만 저는 [양 + 질]을 하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모두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나누자면 6월 전까지는 평가원 기출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과 틀을 만드는 연습을 해주고, 6월 이후부터는 딱치는 대로 많은 지문들을 풀면서 그러한 기준이 적용이 되는가 반복 훈련 및 실전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면 사설이나 외부 지문을 풀 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잘 안풀리거나, 잘 안 읽히는 데? -> 평가원과 조금 거리가 있는 지문이나 문항들이네” ○○○. 정말 좋은 현상이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풀 지문은 평가원이 출제하니까요. 물론 낱수들이나 황들은 가리지 않고 다 잘 풋니다. 다만 내가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평가원 기출에 익숙해져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외에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로 연습 및 확인 용도로 사용해주시면 되지 너무 점수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 신경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합설에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들 간의 관계이다.
- ② 정합설에서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어떤 새로운 명제가 정합적이면, 그 새로운 명제도 참이다.
- ③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에도 참이 아니다.
- ④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연관의 긴밀도 문제 때문에 정합설은 아직 한계가 있다.

22.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 ②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 ③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 ④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 -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
- ⑤ 민수의 말이 옳다. - 은주의 말이 틀리다.

23. <보기>의 명제를 참이라고 할 때,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3점]

<보 기>

○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

- ①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②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③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④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24.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 ① ㉠: 받아들인
- ② ㉡: 일어나지
- ③ ㉢: 밝혀내기
- ④ ㉣: 지나치게
- ⑤ ㉥: 아우를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단락별 정리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 <u>인정한</u>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 <u>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u>를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 <u>발생하지</u>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 <u>해결하기</u>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 <u>과도하게</u>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 신경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 <u>포괄</u>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진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전체 구조 잡기	
몰랐던 어휘 CHECK	

별의 밝기는 별의 거리, 크기, 온도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내며,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한다. 고대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에 따라 가장 밝은 1등급부터 가장 어두운 6등급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1856년에 포그슨은 1등급의 별이 6등급의 별보다 약 100배 밝고, 한 등급 간에는 밝기가 약 2.5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러한 등급 체계는 망원경이나 관측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편되었다. 맨눈으로만 관측 가능했던 1~6등급 범위를 벗어나 그 값이 확장되었는데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은 6보다 더 큰 수로,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1보다 더 작은 수로 나타내었다.

별의 겉보기 밝기는 지구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과학자들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빛 에너지의 총량을 ‘복사 플럭스’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값이 클수록 별이 더 밝게 관측된다. 그러나 별의 복사 플럭스 값은 빛이 도달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별과의 거리가 멀수록 그 별은 더 어둡게 보인다. 이처럼 겉보기 밝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기 때문에 별의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리겔’의 경우 겉보기 등급은 0.1 정도이지만, 절대 등급은 -6.8 정도에 해당한다.

절대 등급은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약 32.6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별의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한다.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인 광도가 클수록 밝아지게 된다. 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네제곱에 비례한다. 즉,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의 표면적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다.

과학자들은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리 지수를 이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를 판단하며, 이 값이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 어떤 별의 거리 지수가 0이면 지구와 그 별 사이의 거리가 10파섹임을 나타내고, 0보다 크면 10파섹보다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은 2.0 정도이고, 절대 등급은 -3.6 정도이므로 거리 지수는 5.6이다. 이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북극성은 10파섹보다 멀리 있으며, 실제로 지구에서 133파섹 떨어져 있다. 이처럼 별의 밝기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 파섹 : 거리의 단위로서 1파섹은 3.086×10^{13} km, 즉 약 3.26광년에 해당한다.

2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별빛이 도달되는 거리가 3배가 되면 복사 플럭스 값은 $\frac{1}{9}$ 배가 되겠군.
- ② 망원경으로 관측한 별 중에 히파르코스의 등급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겠군.
- ③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은 지구에서 약 32.6광년 떨어져 있겠군.
- ④ 어떤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0파섹 미만이라면 그 별의 거리 지수는 0보다 작겠군.
- ⑤ 겉보기 등급이 -1인 별과 겉보기 등급이 1인 별의 밝기는 약 2.5배 차이가 나겠군.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가상의 별 A, B에 대한 정보이다. 별 B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는 각각 별 A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를 1로 설정하여 계산한 값이다.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거리 지수	반지름	표면 온도
A	2	-1	3	1	1
B	1	-6	7	0.1	10

- ① 별 A는 별 B보다 광도 값이 더 크다.
- ② 별 A는 ‘리겔’보다 실제 밝기가 더 밝은 별이다.
- ③ 별 B는 별 A보다 별의 실제 밝기가 약 100배 밝다.
- ④ 별 B는 지구에서 133파섹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
- ⑤ 별 B는 지구에서 볼 때 ‘북극성’보다 더 어둡게 보인다.

별의 밝기는 별의 거리, 크기, 온도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내며,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한다. 고대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에 따라 가장 밝은 1등급부터 가장 어두운 6등급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1856년에 포그슨은 1등급의 별이 6등급의 별보다 약 100배 밝고, 한 등급 간에는 밝기가 약 2.5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러한 등급 체계는 망원경이나 관측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편되었다. 맨눈으로만 관측 가능했던 1~6등급 범위를 벗어나 그 값이 확장되었는데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은 6보다 더 큰 수로,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1보다 더 작은 수로 나타내었다. 별의 겉보기 밝기는 지구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과학자들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빛 에너지의 총량을 ‘복사 플럭스’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값이 클수록 별이 더 밝게 관측된다. 그러나 별의 복사 플럭스 값은 빛이 도달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별과의 거리가 멀수록 그 별은 더 어둡게 보인다. 이처럼 겉보기 밝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기 때문에 별의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리겔’의 경우 겉보기 등급은 0.1 정도이지만, 절대 등급은 -6.8 정도에 해당한다. 절대 등급은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약 32.6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별의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한다.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인 광도가 클수록 밝아지게 된다. 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네제곱에 비례한다. 즉,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의 표면적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다. 과학자들은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리 지수를 이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를 판단하며, 이 값이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 어떤 별의 거리 지수가 0이면 지구와 그 별 사이의 거리가 10파섹임을 나타내고, 0보다 크면 10파섹보다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은 2.0 정도이고, 절대 등급은 -3.6 정도이므로 거리 지수는 5.6이다. 이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북극성은 10파섹보다 멀리 있으며, 실제로 지구에서 133파섹 떨어져 있다. 이처럼 별의 밝기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 파섹: 거리의 단위로서 1파섹은 3.086×10^{13}km, 즉 약 3.26광년에 해당한다.	단락별 정리
--	---------------

전체 구조 잡기

물랐던 어휘 CHECK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 본위에서 자신을 ㉡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뭇’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때문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17. 윗글에서 다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 ② 신채호 사상에서의 자성의 의미
- ③ 신채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
- ④ 신채호 사상에서의 대아의 역사적 기원
- ⑤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 연대의 의의

18. 윗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 ②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④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⑤ 소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1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항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③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④ 신채호가 독립 투쟁을 한 것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 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2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
- ② ㉡: 자기의 처지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 ③ ㉢: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 ④ ㉣: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침.
- ⑤ ㉤: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락별 정리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 <u>본위</u>에서 자신을 ㉡ <u>자각</u>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 <u>설정</u>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 <u>파급</u>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 <u>직면</u>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물랐던 어휘 CHECK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지를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 ② 화제를 소개한 후,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 ③ 주장을 제시한 후, 예상되는 반증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주장의 근거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⑤ 주제를 제시한 후,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있다.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세기 초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의 잔재와 미성숙한 산업 자본주의가 혼재하였다.
- ② 프랑스 혁명 후 수십 년간 프랑스는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③ 헤겔은 국가를 빈곤 문제나 계급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최종 주체라고 생각하였다.
- ④ 뒤르켐은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은 아노미 상태로 보았다.
- ⑤ 헤겔과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시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23.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 실현을 추구한다.
- ② 국가를 견제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한다.
- ④ 공리주의를 억제하고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용한다.
- ⑤ 시민 사회 외부에서 국가와의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24.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 ② 객관적 사회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 문제의식과 무관하다.
- ③ 시·공간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회 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거한 사회 이론은 사회 현실의 문제 상황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 ⑤ 사회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supermoon)’을 보게 된다.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현상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이라 한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이심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이 궤도의 장축 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 한다.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 주기로 세 천체가 ‘태양-지구-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 정도 크게 보인다.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 하는데,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 예를 들어,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각각 0.5° 정도이다.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지구 역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궤도 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다르다.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 궤도의 장축 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갖는데, 이를 각각 원일점과 근일점이라 한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 차이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세 천체가 ‘태양-달-지구’의 순서로 늘어선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이 관측된다.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태양 면의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이 관측될 수 있다.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다.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약 0.017인데,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한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이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2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양의 인력으로 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약간씩 변화될 수 있다.
- ② 현재의 달 공전 궤도는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보다 원 모양에 더 가깝다.
- ③ 금환 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
- ④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달 공전 궤도 상의 근지점일 때보다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다.
- ⑤ 지구 공전 궤도 상의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북반구의 A 지점에서는 약 12시간 25분 주기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이 관측된다. 이 현상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은 때와 가장 낮은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조차는 북반구의 겨울인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다.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고, 다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과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만이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

- ①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②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보름달이 관측된 1월에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③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때보다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될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④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1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 ⑤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7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7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supermoon)’을 보게 된다.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현상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단락별 정리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이라 한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이심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이 궤도의 장축 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 한다.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 주기로 세 천체가 ‘태양 - 지구 - 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 % 정도 크게 보인다.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 하는데,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 예를 들어,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각각 0.5° 정도이다.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지구 역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궤도 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다르다.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 궤도의 장축 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갖는데, 이를 각각 원일점과 근일점이라 한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 차이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세 천체가 ‘태양 - 달 - 지구’의 순서로 늘어서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이 관측된다.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태양 면의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이 관측될 수 있다.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다.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약 0.017인데,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한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이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전체 구조 잡기	
물랐던 어휘 CHECK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 펼친다.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 ④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 ⑤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28. [A]에 제시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② ‘유용하다’는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 ③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 ④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개념적 규정은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 ②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③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
- ④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
- ⑤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3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간주했기
- ② ㉡: 피력한다
- ③ ㉢: 개입하지
- ④ ㉣: 소지하는
- ⑤ ㉤: 확산되어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단락별 정리
[A]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 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전체 구조 잡기	
물랐던 어휘 CHECK	